『주역』을 통해 본 가족 윤리*

— 家人卦와 蠱卦를 중심으로 —

文 載 坤**

<목 차>

1. 가족 해체의 위기
2. 부모의 家道 정립
3. 자녀의 家道 계승
4. 새로운 가족관의 모색

1. 가족 해체의 위기

국가경제가 아이엠에프 체제에 놓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리해고되거나 직장폐쇄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었다. 처자식을 부양할 경제력을 잃게 된 것이다. 좀더 실감있게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목구멍에 풀칠할 길마저 막혀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의 파산을 국가가 나서서 막아주거나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재기의 길을 열어주지도 못한다. 많은 가장들이 급기야는 아무 대책없이 무기력하게 자신의 짐에서 도망치듯 벗어나고자 한다. 세상에서 그들을 노숙자라고 부르지만, 집없이 길에서 먹고 자는 이들이라는 단순한 지칭일 수는 없다. 노숙자의 주변에 널린 수많은 개인적·사회적 문제점들이 어디 태산인들 여기에 견줄 수 있겠는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고통으로 다가옴을 함께 느껴야 될 것이다. 가장인 그들이 노숙자가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7년도 자유공모과제(공동연구) 연구비지원을 받은 논문임.
** 고려대 강사.

되는 순간, 그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던 가정은 해체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가족의 해체는 그저 단순하게 아내와 남편의 갈라섬이라든가 함께하지 못함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기반이 한순간 꺼져내리는 것이다. 가족이 일차적 집단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이차적 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는 근본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가족의 해체는 곧 국가와 사회의 해체라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모두인 시대는 지났다고 우리들은 말한다. 그러나 생존의 벼랑에 떠밀린 여러 사람들이 비인간적 범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자해행위는 물론이고 존속상해 행위까지 빈번하게 일어난다. 사회심리학자나 범죄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학술적 용어로 이런 일탈행위를 분석해 들어간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상해 당사자의 처절한 삶의 허덕임이 배여 있지 못하다. 한낱 분석과 전망이라는 테제 속의 여러 수치 가운데 하나로 박제되어 등장할 뿐이다.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적 모순을 박제식으로나마 분석하고 해결책을 전망할 때, 인문과학자들은 오히려 현실외적이라는 그 특성 덕으로 고민에 내몰리지 않는 혜택을 누려왔다. 그들은 현실의 뒤엉킨 문제보다는 숭고한 인간의 도덕과 이상을 논의하면서 사람이 사람인 까닭과 사람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약속을 담보로 해왔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부닥친 현실 속에서는 자신의 말을 이내 입밖에 내지 못하고 삼켜버리곤 한다. 한 마디로 말해 자신의 담론을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소박함을 솔직하게나마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나마 지탄받지는 않는다. 애석하게도 장안에는 이미 고삐풀린 망아지 격인 글들이 난무하다. 자신도 가보지 못했거나 가지 않으려 하는 길로 남들을 몰고가는 것이다.

경제적 궁핍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된 것은 무시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의 해체가 단순히 물질적 원인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철학적으로 보아 그것은 가장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이 '가족'

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 옛날부터 어느 때 어느 곳인들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압박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지금만큼 막무가내로 가족이 해체되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본다. 그 어려움이 자신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인간사회 전체의 절대적 빈곤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족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 본능일 수 있는 피붙이에 대한 애틋함이 가족의 바탕이 되고, 또 그것이 세파의 바람막이가 되는 보금자리임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보다는 물질이 중심이 됨으로써 인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경제적 도탄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능한 가장은 더 이상 집안의 어른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꿩잡는 게 매라는 식의 공과주의가 가족의 해체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제 가족을 물질 위에서만 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제자리를 추스르려면 가정의 평안과 화목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정은 모든 사회활동의 기초라는 말을 애써 하면서도 선행조건은 해결하려 들지 않고 있다. 여기서 '가화만사성'을 떠올리게 된다. 진리란 단순한 것이다. 다만 그 실천이 어려울 뿐이다.

이 글은 우리가 겪는 가족 해체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 윤리를 『주역』을 통해 되새겨 보고자 한다. 한 개인이 가족이라는 일차적 집단 속에서 갖는 깊은 의미와 자신의 의무 그리고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자 한다. 가정이 곧 자신의 실현 가운데 하나라는 엄연한 삶의 진리를 알 때, 개인은 더욱 무게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것이다. 결코 교조적 고찰이 아니라 하나의 회상으로 시도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본연적 윤리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2. 부모의 家道 정립

전통적 가족 윤리관으로 볼 때 가정의 주체는 남성, 그 가운데 아버지다. 그러나 아버지 단독으로 완전한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보지는 않았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육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 가족을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였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乾卦와 坤卦로서 반영한다.

생명의 化育에 陰과 陽의 그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원만한 성취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연한 역할 분담이 있게 마련이다. 그 주동적 역할은 양에 주어지고 음은 그에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모든 사물의 始終本末을 고려할 때 陽은 시작(始)과 근본(本)이 되고 陰은 마침(終)과 지엽(末)의 위치에 선다. 坤卦 六三의 효사 '含章可貞, 或從王事, 无成有終'을 풀이하면서 「文言傳」은 "음이 비록 아름다움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머금고 왕의 일을 따르며 감히 (독자적으로) 이루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땅의 도리이며 처의 도리이고 신하의 도리다. 땅의 도리(地道)는 성취함이 없고 끝맺음을 대신한다"[1]고 하였다. 만물이 힘입어 생명이 비롯되는 乾元은 변화의 주동적 역할을 한다.[2] 그에 따라 만물이 자기 생명을 성취해 나간다. 그런데 만물이 또한 힘입어 살아가는 坤元은 天道를 유순하게 받들어 그 덕에 합치됨을 궁극적 성취로 한다.[3] 세상만물의 하나 하나에 하늘과 땅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다면 시작은 있으나 성취가 없고 성취하려 해도 시작이 없게 된다. 때문에 땅과 하늘은 그 위대한 작용으로서의 '낳아줌(生)'[4]에서는 동등한 지위와 대우가

1) 『周易』, 「坤 · 文言傳」, "陰雖有美含之, 以從王事, 弗敢成也, 地道也, 妻道也, 臣道也. 地道无成而代有終也."(이하 『周易』의 인용은 편명만 밝힘)

2) 「乾 · 彖傳」, "大哉乾元, 萬物資始.… 乾道變化, 各正性命."

3) 「坤 · 彖傳」, "至哉坤元, 萬物資生, 乃順承天. 坤厚載物, 德合无疆."

4) 「繫辭下傳」에 천지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만물을 낳아줌에 있다고 했다("天地之大德曰生").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의 구성 또한 이러해야만 한다.

1) 부모의 역할

『주역』에서 가족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위와 역할을 잘 반영하는 괘는 家人卦이다. 상하 二體로 말할 때 바람을 나타내는 巽卦가 위에 있고 불을 나타내는 離卦가 아래에 있다(離下巽上). 「대상전」은 "바람이 불에서 나온다(風自火出)"고 하여, 자연적으로 따뜻한 기운이 돌기 때문에 특별히 멀리 미칠 것을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5] 자신을 제대로 닦으면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멀리까지 미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한 가정으로 볼 때 자신이 닦이면 집안이 다스려진다는 말이다.[6] 그러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베푸는 사람의 평이하고 근실한 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성원의 진실한 태도다. 양자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낱 실현불가능한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괘의 상하 이체를 총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운데 네 효는 음양이 각기 제자리에 있어 當位하였고 이효와 오효는 中正을 얻었다. 따라서 괘상으로 볼 때 길하고 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효와 상효에서 陽剛한 효가 가로막아 조절하기 때문에, 이효에서 오효까지의 효상이 서로 같은 蹇卦·漸卦·旣濟卦와는 다른 형국을 이룬다. 가인괘는 초효와 상효의 덕이 충분히 닦여 충만한 상태에서, 가운데 네 효가 저지를 수 있는 안일과 방만을 견제하고 훈도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도리와 비슷한 것이다.

가인괘의 괘사는 단순하다.

---

5) 王夫之, 『周易內傳』, 「家人·大象傳」, "風自火出, 和煦而不務遠及 … 君子取法於風火, 言行平易近情, 無速於致遠之心, 自足以致遠, 家修之道然也."

6) 朱熹, 『周易本義』, 「家人·大象傳」, "身修則家治矣."

여인의 곧음에 이롭다(利女貞).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여인이 곧으면 이롭다는 것이다. 괘사 성립의 정확한 연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최소한 그것이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周나라 초기에 형성되었다는 정도는 받아들일 만하다.[7] 농경 문화는 철저히 윤리성을 띤다. 일정한 거처에서 빈번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 태도는 자연히 요구된다. 그에 따라 그 문화의 구성원들은 남녀노소의 관계성 또한 일정한 규범 속에 놓이게 된다. 가인괘 괘사에서 말하는 여인은 이처럼 남성과는 상대되는 존재로 자리매김된 개체다. 여인으로서의 역할이 남성의 그것과 구분된다. 생산 체제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이란 일차적 집단에서도 그 역할이 분담된다. 「단전」은 "가족간에 여자는 자리를 안에서 바로 하고 남자는 자리를 밖에서 바로 한다. 남자와 여자가 바로 하는 것이 천지의 큰 도리이다"[8]고 하였다.

「단전」은 남녀의 내외 정위를 천지의 큰 이치라고 규정한 다음 이어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다.

가족에 엄한 통솔자가 있으니, 바로 부모를 이르는 것이다.[9]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통솔자가 있어야 안정된다. 부모의 존재가 이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상은 많은 차이를 보여왔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존재는 외부지향적으로 길들여졌다. 따라서 세세한 가족의 문제보다는 天下治平의 도를 닦는 데 큰 관심을 가졌다. 자기를 닦는 일도 결국은 남을 다스리는 일을 위한 전제였다. 학문을 하는 이유도 출세라는 목적이 크게 좌우하였다. 공자는 사람된 도

7) 『주역』의 성립 연대에 관한 논의는 李鏡池의 『周易探源』과 高亨의 『周易雜論』을 참조 바람.
8) 「家人 · 彖傳」, "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9) 「家人 · 彖傳」, "有嚴君焉, 父母之謂也."

리를 실천하고 여력이 있으면 학문을 하고[10] 학문이 성숙되면 벼슬에 나가라고 하였지만,[11] 대부분은 입신양명하여 자신을 세우고 집안을 빛내는 일에 마음이 가 있었다. 이것을 효도의 궁극적 단계로 설정한 점이 그것을 잘 반영한다.[12]

가인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구조를 잘 반영한다. 初九는 '막는다(閑)'는 의무를 부여하고, 上九는 '믿음이 있으며 위엄스럽다(有孚威如)'하여 권위를 칭송한다. 위엄있는 믿음은 '자신을 돌이켜 닦음(反身)'에서 온다고 「상전」은 말한다. 막는 치닥거리와 자신을 세워나가는 닦음은 그 성질부터가 다르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예측불허의 일을 통솔하느라 여념이 없는 반면, 한 사람은 순수한 이상을 향한 부지런한 자기 닦음만 수행하면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편향되게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면 한 가정은 화목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전통적 가족윤리관의 특징이기도 하다. 가족내에서의 온전한 정서와 인격이 함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도덕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도덕적 정서의 시작은 피붙이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일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사랑을 느껴보고 그것을 베풀어 본 이가 사랑의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피상적 느낌만으로는 그 정서가 지속되지 않는다. 體認이 돼야만 누구의 강요나 제재없이도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다. 공자가 인을 부르짖으며 서로 사랑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사랑의 확인을 피붙이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확인하도록 한 것은 뛰어난 혜안이다.[13] 맹자는 이런 윤리적 층차는 피붙이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보살핌, 사물에 대한 아껴줌

10) 『論語』, 「學而」,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則以學文."
11) 앞의 책, 「子張」,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
12) 『孝經』, 「開宗明義章」,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13) 『論語』, 「學而」, "孝悌也者, 其爲仁之本與!" ; 『孟子』, 「告子下」, "親親, 仁也. 敬長, 義也."

으로 그 점층적 확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14]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뒤따르는 명제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맹자는 친절하게 내 집안의 아이와 노인을 제대로 보살피고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아이와 노인을 보살펴 나갈 것을 말해 준다.[15]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은 부모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구성원 전체가 제 본분을 다할 때 '가정의 화평'이라는 결실을 얻는다. 이 점을 가인괘의 「단전」은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답고 형이 형답고 아우가 아우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우면 가정의 법도가 바르게 되고, 가정의 법도를 바로잡으면 천하가 안정되게 된다"[16]고 하였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유한한 존재가 무궁하게 존속하기 위한 근본적 역량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변화에 순응하면서 종족의 유지 존속을 꾀하는 것이다. 부모의 결합은 애정이 전제되겠지만 그보다도 자기의 존속을 위한 자손의 생산이란 대전제가 앞선다. 그러나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문화가 있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계승·발전된다. 繼往開來가 없다면 인간도 야만의 한 부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문화는 윤리 도덕을 기반으로 한다. 가인괘에서 '父父子子'를 거론한 첫번째 이유가 이러한 데에 있다. 부모다움과 자식다움은 생명의 동물적 연속성 이상의 인간다움이란 윤리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가인괘의 이상을 구태여 거부할 필요는 없다. 개인의 성취가 곧 가족의 성취가 된다고 했을 때 사람은 그만큼 책임을 느끼고 좀더 성실하고 신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것이 개인과 가정을 뛰어넘어서 전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가인괘의 괘상으로 볼

14) 『孟子』, 「盡心上」, "君子之于物也, 愛之而弗仁. 于民也, 仁之而弗親.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15) 앞의 책, 「梁惠王上」, "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天下可運于掌 … 古之人所以大過人者, 無他焉, 善推其所爲而已矣."
16) 「家人·彖傳」, "父父, 子子, 兄兄, 弟弟, 夫夫, 婦婦, 而家道正. 正家, 而天下定矣."

때 초효와 상효는 '부모가 부모다움'을 보여주고 가운데 득위한 네 효는 '자식이 자식다움'을 말해 준다. 다시 삼효와 사효는 서로 이끌고 따르는 형제의 관계다. 형은 자애로 우애를 보이기 때문에 유순한 음효이고 아우는 장경함으로 공경을 삼기 때문에 강건한 양효이다. '남편이 남편다움'은 오효가 외괘에 정위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아내가 아내다움'은 이효가 내괘에 정위하는 것으로 상징된다. 이 모두를 통솔하여 가정을 이끄는 것은 엄군으로서의 부모다. 초효와 상효가 가인괘의 덕을 이루는 주체다. 「대상전」에서 군자가 가인괘의 괘상을 보고 말에 근거가 있고 행위에 법도가 있도록 한다고 한 점은[17] 가정의 주체인 부모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다.

가정의 법도가 바로 설 때 천하의 질서도 유지될 수 있다. 가정 생활이 다르고 사회 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다. 만약 서로 다른 이중성이 만연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결속력이 강화되지 못하고 자체의 모순이나 외부의 침입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의 불안정은 궁극적으로 가정 윤리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부조리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누구 하나 온전히 그것을 꾸짖어 바로잡으려는 용기를 내지 못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나 또한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폐쇄적 양해심과, 세상이 나 하나로 바뀌지 않는다는 나약한 겸허가 그런 행동을 부추긴다. 가인괘 「단전」의 "가정을 바로 해야 천하가 안정된다"는 한 마디는 무책임한 거대 이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개혁 의지와 실천 가능성을 제공하는 진리 체계이다.

2) 治家의 층차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살펴보자. 가인괘 六二는 공손한 자세로 자신의

17) 「家人·大象傳」, "風自火出, 家人. 君子以言有物, 而行有恒."

욕심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는 경건하게 남편을 따라 제사를 받드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아내의 모습을 말해 준다. 우리들은 흔히 자기 식구에게는 정에 이끌려 엄격하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인괘는 양강함을 선으로 받아들인다. 육이는 當位와 中正을 하였음에도 그로써 집안을 다스릴 수는 없다. 오직 부인의 도로 안살림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에 가장 적합한 상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고 남편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이끌어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18]

九三은 그 엄격함이나 은혜로움이 지나쳐 집안식구와 부녀자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무절제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19] 가족을 이끌어나가는 데에는 엄함보다는 은혜가 필요하다고들 한다. 매로 다스리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함과 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엄함이 지나치면 따라오기 힘들어하고 은혜가 지나치면 법도가 없게 된다. 근엄함이 지나치면 인정에 손상을 끼치게 되겠지만, 법도와 윤리가 세워지는 데에 은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이 때문에 九三의 효사에서 "지나침을 뉘우치면 길하다"고 하여 적절한 근엄의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끝내는 유감스럽다"고 하여 무절제한 은혜의 부정적 결과를 지적하고 있다. 「소상전」은 적절한 근엄은 "법도를 잃지 않았다"고 하고 지나친 은혜는 "가정의 법도를 잃었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六四는 음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 음효의 가장 큰 특징은 마무리를 잘 짓는다는 점에 있다. 양이 명분을 주관해 일의 시작을 도모한다면 음은 마무리하면서 명분의 조화로운 결과인 실리를 주관한다. 육사효는 그 특징을 잘 반영한다. 효사에서 "집안을 부유하게 하여 크게 길하다(富家大吉)"고 하였는데 「소상전」은 "유순함으로 제자리에 있

18) 程頤, 『程傳』, 「家人・六二」, "… 如二之才, 若爲婦人之道則其正也. 以柔順處中, 正婦人之道也. 故在中饋則得其正而吉也. 婦人居中而主饋者也. 故云中饋."

19) "家人嗃嗃, 悔厲吉. 婦子嘻嘻, 終吝." '학학'은 불이 타오름이고, '희희'는 불똥튀는 소리다.

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지나치게 나서지 않고 유순함으로 물러나 교만하지 않음으로써 집안의 부유함을 오래도록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九五에 이르면 "왕이 나라를 가짐에 이른다. 근심하여 살피지 않아도 길하다(王假有家勿恤吉)"고 효사는 말한다. 왕은 그만한 덕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천하를 가진 제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덕으로 충분히 교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근심하여 돌보지 않아도 풍교가 저절로 변화하여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해 준다.[20] 오효는 강건하면서 중정한데, 아래로 六二의 유순·중정과 응한다. 한 집안으로 볼 때 남편이 충분한 인격과 능력이 있으면서 착실한 아내의 보필을 받는 것이다. 「소상전」에서 "서로 사랑함을 나눈다"[21]고 한 표현은 부부 관계의 극치를 보여준다. 정이는 "남편은 그 내조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바로잡음을 사랑함이 서로 사랑함을 나누는 것이다"[22]라고 하였다. 엄정함이 은혜로움의 부족을 염려하여 자족한 덕으로 아내의 내조를 기다리고, 은혜로움은 엄정함의 틀을 받아들여 사랑과 즐거움을 넘치게 하면서도 절도가 있어 지나치지 않게 되어 집안이 저절로 다스려지게 된다. 이처럼 아내와 남편의 상호 관계는 중요하다.

『주역』의 여러 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일을 기술하고 있다. 『주역』의 가족에 관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아내의 문제에 쏟고 있다. 屯卦·賁卦·睽卦의 '婚媾', 蒙卦·姤卦의 '娶女', 蒙卦의 '納婦', 歸妹卦·泰卦의 '歸妹', 大過卦·遯卦·鼎卦의 '得妻'·'得妾' 등은 여자를 시집보내거나 얻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준괘의 '不字'와 점괘의 '不孕'은 임신의 문제를 다룬다. 남녀의 결합은 인륜대사이면서 천지의 대의다. 천지간에 남녀가 있어 부부가 있고 그로부터 부자와 군신의 관계가 있어 상하

---

20) 王夫之, 『周易內傳』, 「家人·九五」, "九五剛中得位, 與二正應, 以德相感, 格正其家, 而家道正矣, 則化未及遠, 不足爲憂, 而風教所被, 邦國天下自化."

21) 『周易』, 「小象傳」, "王假有家, 交相愛也."

22) 程頤, 『程傳』, "夫愛其內婦愛其刑家交相愛也."

의 구별이 있게 되고 그것이 예의가 형성될 수 있는 근거라고 「서괘전」은 갈파하였다.[23] 천지가 교류하지 않으면 만물이 일어나지 못하는데,[24] 남녀의 결합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의 처음과 끝이다. 서로의 덕을 충분히 가꾼 뒤에 서로 감응하여 함께 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마련이다.[25]

가인괘의 전체적 분위기는 初爻의 "여자가 곧음에 이롭다"라는 말이 이끌어 왔다. 그 마무리를 上九의 "믿음이 있으며 위엄스러우니 끝내 길하다(有孚威如終吉)"는 효사가 하고 있다. 책임의 무게가 어머니쪽에 편중돼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아버지가 지닌 위엄이 없으면 어머니의 역할도 끝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 九五의 서로 사랑함을 나눈다는 데에서도 보았듯이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효는 괘의 마지막이며 家道의 완성이기도 하다. 治家의 근본이 바로 이것임을 『주역』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집안을 다스리는 도는 지극한 정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음속에 신의가 있어야 오래 갈 수 있고 다른 식구들이 그것을 법으로 삼아 저절로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믿음만 있다고 모든 이가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믿음이 있어 상호 교류하면서도 거기에는 반드시 위엄이 있어야 한다. 상대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신의 위엄을 거두어서는 안된다. 大有卦 九二의 "큰 수레로 싣는다(大車以載)"는 것과 六五의 "믿음이 있어 사귀고 위엄을 갖는다(厥孚交如, 威如, 吉)"고 한 것은 이런 점을 잘 반영하는 象이다. 九二의 큰 수레로 싣기 때문에 가득 채워도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六五의 주창함이 없이 이룰 수는 없다. 六五가 유순하여 믿음을 지니고 상호 교류하지만 위엄이 있어야만 九二를 적절히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23) 「序卦傳」, "有天地, 然後有萬物, 有萬物, 然後有男女, 有男女, 然後有夫婦, 有夫婦, 然後有父子, 有父子, 然後有君臣, 有君臣, 然後有上下, 有上下, 然後禮義有所錯."

24) 「否・象傳」, "… 是天地不交而萬物不通也" ; 「泰・象傳」, "… 是天地交而萬物通也."

25) 「咸・象傳」, "天地感, 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 而天下和平. 觀其所感, 而天地萬物之情, 可見矣."

가인괘의 上九는 양강하면서 믿음을 가지니 이미 위엄을 충분히 지닌 존재다. 그것은 고집해서가 아니다. 처자에 대한 사랑에서 자애로움이 지나치면 위엄이 없고 은혜로움이 지나치면 명분을 덮어버리기 쉽다. 그러기에 집안의 근심은 항상 예법이 부족하여 오만방자함이 생겨날까 하는 데에 있다. 때문에 집안에는 위엄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 보호하는 애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지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버지가 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인식해 왔다. 「소상전」에서 "자신을 돌이켜 닦는다"고 한 것은 위엄을 부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닦고 있으면 남들이 두려워 따르게 되는 결과를 자연히 가져올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쉽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스스로를 완전히 닦은 경지는 성인의 경지일 테니 말이다. 때문에 맹자는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칠 수 없고 서로 바꿔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자식에게 위엄을 갖추고 사람의 도리를 설파했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스스로는 그러한 도리를 완전히 해나가고 있는가를 되물어 올 수 있기 때문이다.[26]

3. 자녀의 家道 계승

1) 자녀의 事親

화목한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일은 부모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자

26) 『孟子』, 「離婁上」, "公孫丑曰, 君子之不教子, 何也? 孟子曰, 勢不行也. 教子必以正. 以正不行, 繼之以怒. 繼之以怒則反夷矣. 夫子教我以正, 夫子未出於正也, 則是父子相夷也. 父子相夷則惡矣. 古者易子以教之. 父子之間不責善. 責善則離. 離則不祥莫大焉." 그런데 顔之推는 오히려 경전에서 부자지간에 직접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顔氏家訓』, 「教子」, "蓋君子之不親教其子也, 詩有諷刺之辭, 禮有嫌疑之誡, 書有悖亂之事, 春秋有褒貶之義, 易有備物之象, 皆非父子之可通言, 故不親授耳.").

녀의 역할 또한 크다. 부모는 사랑과 인내와 위엄으로 자식을 기르고 가르쳐 나가며 자녀는 그것을 공경과 순응으로 받아들이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서로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역』의 蠱卦는 자녀가 부모의 일을 처리하거나 봉양하는 것을 상징하는 괘다. 산이 위에 있고 바람이 아래에 있는 고괘(巽下艮上)의 괘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설이 있기는 하다.[27] 어쨌든 고괘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거나 부모의 일을 자식이 처리한다거나 하는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의미를 취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 일을 도모하는 사실을 말함에는 차이가 없다. 효사 가운데에는 세 곳에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幹父之蠱)", 한 곳에서 "아버지의 일에 넉넉히 한다(裕父之蠱)", 한 곳에서 "어머니의 일을 한다(幹母之蠱)"를 말하는 등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다섯 효에 걸쳐 나온다. 上九는 부모섬기기를 다 마친 뒤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일을 말한다. 유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런 이상을 갖고 싶을 것이다.

고괘의 괘사는 '蠱'와 같은 행위가 매우 바람직하며 궁극에는 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준다고 하였다. 물론 철저한 준비성이 전제될 것을 잊지 않고 강조한다.

크게 형통하다. 큰 내를 건넘에 이롭다. 일에 앞서 3일, 일의 뒤에 3일을 생

27) 정이와 주희는 「서괘전」의 "蠱는 일이다(蠱, 事也)"라는 설을 따른다. '고'는 원래 그릇에 벌레가 있어 그릇이 망가지는 의미를 갖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를 일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다고 했다("蠱, 事也. 蠱非訓事, 蠱乃有事也.… 蠱之義壞亂也. 在文爲蟲皿, 皿之有蟲, 蟲壞之義). 그러나 왕부지는 '고'라는 글자는 그릇에 물건을 담아 어른에게 갖다 드리는 상으로 복희 시대에 행한 봉양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周易內傳』, 「蠱」, "蠱之爲字, 從蟲從皿. 當伏羲之時, 民用佃漁, 未有粒食, 奉養於人者, 以皿盛蟲以進之. 毛血鱗介昆, 皆蟲也. 伏羲以此取義, 而謂之蠱"). 고대 생활상으로 미루어 본다면 왕부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하다. 그러나 갑골문이나 금문에서는 '고'자가 눈에 띄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희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성싶다.

각하라.[28]

부모와 자식 사이나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서로 본분을 다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또 그로써 일을 순조롭게 처리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 순항만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순탄과 행복 뒤에는 고난과 역경이 늘 도사리고 있다.[29] 그것이 '큰 냇물'이다. 편안할 때 위태롭게 될 상황을 잊지 않고 경계하고, 또 자신이 행위 주체일 때도 늘 자신이 주변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과 편안함만 믿고, 나태하거나 방만하면 스스로 화를 초래할 수 있다.[30]

경계하는 마음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 스스로의 준비로 이루어진다. 그 누가 듣거나 보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된다. '일에 앞서 3일, 일의 뒤에 3일'은 좀더 현실적인 조언이다. 일이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마련이다. 일을 시작함에 앞서 신중히 고려한 다음 그것을 도모하게 되면 그만큼 폐단을 줄일 수 있고, 일을 시작한 다음 그것이 전개될 상황을 엄밀히 추측해 보면 실패없이 추진해 나가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31] 이러한 태도를 모든 사람들이 견지한다면 일에 있어 그르침이 그만큼 적어 전체 사회의 안녕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기에 고괘 「단전」에서 蠱의 크게 형통됨을 바탕으로 할 때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결국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위계 질서가 확립되어 아랫사람은 공손한 자세로 윗사람의 결정

---

28) 「蠱卦」, "元亨, 利涉大川. 先甲三日, 後甲三日."

29) 『老子』, 58장, "禍兮, 福之所倚. 福兮, 禍之所伏."

30) 「繫辭下傳」, "子曰, 危者安其位者也, 亡者保其存者也. 亂者有其治者也. 是故, 君子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亂, 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 易曰, 其亡其亡, 繫于苞桑." 「否卦·九五」 효사를 풀이한 것이다.

31) 程頤, 『程傳』, 「蠱」, "甲, 數之首, 事之始也. … 治蠱之道, 當思慮其先後三日, 蓋推原先後爲救弊可久之道. 先甲謂先於此究其所以然也, 後甲謂後於此慮其將然也. 一日二日至於三日, 言慮之深 推之遠也. 究其所以然則知救之之道, 慮其將然則知備之之方, 善救則前弊可革, 善備則後利可久."

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윗사람은 겸양한 마음으로 아랫사람의 조언을 참작하여 무리한 추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32] 서로를 견제하며 서로를 시기하여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 행위를 일삼지는 않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2) 事親의 층차

고괘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일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다. 「고괘·初六」은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태도의 처음을 말한다.

> 아버지의 일을 받든다. 아들이 있어 아버지가 허물이 없다. 위태로우나 끝내 길하다.[33]

아버지의 일을 자식이 대신하는 경우는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능력 부족으로 인한 나름의 허물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자식된 입장에서 먼저 아버지의 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 그것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 성숙된 효를 말할 때, 부모의 기대와 이상 또는 사업을 계승 발전하는 일을 강조한 것이 이 때문이다. 단순한 순종과 물질적 봉양은 그것이 가장 절실한 사안이면서도 성숙된 효라고 하기에는 힘들다. 인간 생명의 계승은 종족 보존만이 아니라 그 이상 실현에서 궁극적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가치에서 承先啓後가 부모

---

32) 「蠱·彖傳」의 "蠱元亨而天下治也"에 대해 『程傳』은 "治蠱之道, 如卦之才, 則元亨而天下治矣. 夫治亂者, 苟能使尊卑上下之義正, 在下者巽順, 在上者能止. 齊安定之事, 皆止於順, 則何蠱之不治也? 其道大善而亨也. 如此, 則天下治矣"라고 풀이하고 있다. 정이의 설명은 蠱卦의 구성이 아래는 巽卦, 위는 艮卦이기 때문에 '손'은 겸손의 의미가 있고 '간'은 그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33) 「蠱卦」, "幹父之蠱. 有子, 考无咎. 厲終吉."

의 부재 시점부터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지나친 謹愼이라고 보여진다.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데 자식이 어떻게'라는 심정 토로는 적극적 행위를 제한한다. 부모의 부족함을 자식이 보충한다는 것은 월권이 아니라 자연스런 이양과 승계라고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아들이 있어 아버지가 허물이 없다"는 말은 이런 점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初六의 유순함이 아니라면 그것은 부모를 능멸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만큼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 시점의 포착이 어렵다. 부모라는 아버지의 완강한 고집이 섣불리 자식에게 권한을 양도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자칫 유순한 태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집안의 화목과 성취라는 근본 취지가 있음으로 해서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기에 "위태로우나 끝내 길하다"고 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아버지의 경우와 다르다. 고괘에서도 아버지의 경우는 네 번에 걸쳐 이야기를 하였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한 번에 그친다. 그만큼 전통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낮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九二 효사의 "貞固해서는 안된다(不可貞)"는 것과 「소상전」의 "중도를 얻었다(得中道也)"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 '貞固', 곧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단단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행위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를 지켜 나가면서 적절한 상황에서 머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유순함으로 도와 이끌어 도리의 합당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머니가 그것에 순응하지 않아 일을 그르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자식의 죄다. 순수히 응하지 않게 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여성이란 특성을 감안할 때 어머니 역시 음유한 성품을 갖는다. 그런데 자신의 양강한 생각으로 별안간 바로잡으려 한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손상시켜 폐해가 크게 된다. 그러니 설득이 될 리 만무하다. 자신을 굽히고 생각을 낮춰 따라오시도록 하여 도리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할

뿐인 것이다.[34] 때문에 "어머니의 일을 함에 정고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이다. 강직한 도를 확고하게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爻位로 볼 때 九二는 양효로 음위에 있어 得正하지는 못하지만 得中하여 지나친 강직함을 보이지 않는다.[35] 때문에 「소상전」에서 "중도를 얻었다"고 하였다. 능히 중도를 지켜 고집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 일을 함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36]

어머니의 경우야 자식이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펴나갈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그다지 원활하지가 않다. 부모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간청하는 것이 효라고 하였지만, 끝내 따르지 않으면 울며 부모의 행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역시 전통적 효관이다. 고괘의 구삼효와 육사효를 통해 이러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구삼효는 양강한 재질로 하괘의 맨 위에 자리하였다. 마음껏 자기 주장을 펴고 싶은 상황이다. 그러나 過剛하고 중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 때문에 "약간의 후회가 있다(小有悔)"고 하였다. 약간의 후회가 있으나 결국 구삼효는 하괘 손체의 성질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엄연히 과강하더라도 손순해야 한다는 내면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부모를 섬기는 가장 기본된 마음이 巽順함이다. 자신의 생각이 십분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기 주장을 펴지만 기본적으로 양보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37] 이 때문에 "큰 허물은 없다(无大咎)"고 하였다. 자식이 합당한 논리와 부모에 대한 공경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

---

34) 程頤, 『程傳』, 「蠱・九二」, "夫子之於母, 當以柔巽輔導之, 使得於義. 母不順而致敗蠱則子之罪也. 從容將順, 豈無道乎? 以婦人言之則陰柔可知. 若伸己陽剛之道, 遽然矯拂則傷恩, 所害大矣. 亦安能入乎? 在乎屈己下意 巽順將承, 使之身正事治而已. 故曰不可貞. 謂不可貞固盡其剛直之道. 呂是乃中道也."

35) 王夫之, 『周易內傳』, 「蠱・九二・小象傳」, "承其居中之正, 而不順其過剛之爲, 斯得之."

36) 程頤, 『程傳』, 「蠱・九二・小象傳」, "二得中道而不過剛, 幹母蠱之善者也."

37) 『論語』, 「里仁」, "事父母, 幾諫, 見志不從 ,又敬而不違, 勞而不怨" ; 『孟子』, 「離婁上」, "夫章子, 子父責善, 而不相遇也. 責善, 朋友之道也, 父子責善, 賊恩之大者."

예나 지금이나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일은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균형잡힌 윤리 체계를 가진 사회라 하더라도 세대간에 발생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일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맹목적 반항과 저항적 불복종은 현대 사회의 큰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고괘 九三의 지혜를 빌린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원만한 인격을 도야해 나간다는 대전제가 자녀 세대에게 원활히 수용돼야 할 것이다.

자녀들 가운데는 賢不肖의 차등이 있을 수 있다. 九三과 같은 양강한 영민함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부모의 그늘에 안주하려는 음유한 우둔함도 있다. 고괘의 육사효는 이 점을 반영한다. 비록 상괘에 속하기는 하지만 맨 아래에 처해 있다. 또 음으로서는 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순한 재질이고 제자리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현상을 보전하면서 무리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일을 넉넉히 한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38] 결국 무엇을 도모하려고 하면 능력의 한계탓으로 다른 사람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어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往見吝). 「소상전」은 "도모해서 성공할 수 없다(往未得也)"고 못박아 말한다. 그러나 이 태도가 꼭 부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능력을 모르고 무모한 도전을 하여 일을 망치고 집안을 거덜내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유감스럽다(吝) 하고, 흉하다 하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 가장 이상적인 태도는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承先啓後와 繼往開來라는 효의 기본적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고괘 六五에서 이 점을 찾아볼 수 있다. 六五는 유순함으로 존위에 자리하고 양

38) 「蠱卦·六四」의 "裕父之蠱, 往見吝"에서 '裕'를 정이와 주희의 해석을 따라 寬裕로 새겼다. 王夫之는 이 '裕'를 '남음(有餘)'으로 새기고 있다. 자식된 도리로 힘을 다해 부모를 섬기면 남음이란 없다. 그러나 잘못된 도리로 부모의 사사로움을 따르려 하면 다른 이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 이것이 남음이 있는 것이다. 六四가 음효로 음위에 자리하여 음유함이 지나친데 제재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이 있다고 하였다(『周易內傳』, 「蠱·六四」 참조). 이 또한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에 같이 소개한다.

강한 九二의 도움을 받는 상이다. 오효는 이른바 尊位로 국가로 보면 임금에 해당하고 집안으로 보면 가장이다. 그런데 음효로 존귀한 자리에 있으니 스스로 創業垂統할 수는 없다. 집안의 대소사를 꾸려나가되 기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풍을 열 수는 없다. 비록 가장의 역할을 하지만 엄연히 아버지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항상 그 뜻과 마음을 살펴나가야 하는 것이다. 六五는 철저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九二가 바로 아버지의 그러한 자리다. 이미 늙고 쇠하였지만 자식이 함부로 擅斷해 집안을 꾸려나가서는 안된다. 이것이 전통적 효관에 철저히 나타나는 승선계후의 정신이다. 설사 아버지의 존재가 이미 가까이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 세월의 개혁 유보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부업을 잘 계승함으로써 영예를 얻게 된다. 한 국가로 말하면 창업에 뒤이은 수성을 잘하는 현명함이다. 六五가 "아버지의 일을 해 나감에 영예를 얻는다(幹父之蠱用譽)』고 한 까닭이다. 이러한 고괘 六五의 정신이 한 집안의 세대 교체에서 실현될 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가꾸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존재가 뒤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부모가 자식을 못미더워해서가 아니라 물이 아래로 흐르듯 전통과 가풍이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것이다. 「소상전」에서 부모의 일을 해 나가면서 영예를 얻는 것은 모두 부모의 덕이 보살펴주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깊이 음미해야 한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뜻을 계승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전통 사회에서처럼 사회 체제나 역할 구조의 큰 변동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만큼 더 절대적이었다. 그렇다고 자식이 천년만년 부모의 세계만을 고집해 나갈 수는 없다. 자기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부모의 세계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효의 마지막으로 입신양명을 거론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입신양명은 자신의 사회적 진출이면서 곧 가문에 또 하나의 명예를 가져다주는 일이다. 집안의 일에만 매여 평생을 마친다면 이 세상에 온 의미가 반감된다. 가장 빼어난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기 성취의 고결함을 방치할 수는 없다. 『중

용』의 말대로 천지의 化育에 參贊하여 궁극적으로 配天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멀리해서는 안된다.[39]

고괘의 상구 효사에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왕후를 섬기지 않고 그 일을 고상하게 한다." 사람은 태어나 한 인격체로서 자기완성을 꾀하고 그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주고픈 욕망을 누구나 갖게 마련이다. 자기 완성이 이미 힘든데 사회적 실현이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회적 실현의 어려움 때문에 고상한 뜻을 접으려 해서는 안된다. 그럴 때일수록 뜻을 굳게 가져 자신의 세계를 더욱 알차게 닦아 나가야 한다고 옛 성현들은 강조하였다. 현실의 고난을 핑계삼아 위선을 부리거나 방자한 행위를 하는 일은, 그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게 다가온다고 해도 결코 탐닉해서는 안된다.[40] 그렇다고 뜻을 굽히지 않음이 궁극적으로 찬란한 실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艱貞'의 대가는 자기충실성에 따른 흡족함 이상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 자신의 도를 굽혀 세속에 영합하지 않으려는 지절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 사회의 고상한 풍기가 자리잡게 된다. 때를 만나지 못하였어도 자신의 몸을 도덕의 체현체로 인식하고 자신의 일을 고상하게 여겨 뜻을 지켜나가는 지식인이 요청되는 것이다. 도덕 경륜을 가슴에 품었어도 때를 만나지 못해 고결한 정신으로 스스로나마 지켜 나가는 사람, 자기 분수에 지족함을 알고 물러나 스스로를 유지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깨끗한 지조를 지키며 세상일에 신경쓰지 않으며 자기 몸을 홀로 맑게 하려는 사람 등, 그 처지와 태도가 다르더라도 그들이 세상에 드리우는 빛은 한결같다. 나아가고 물러

---

39) 『中庸』, 22장,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27장, "大哉聖人之道, 洋洋乎發育萬物, 峻極于天" ; 31장, "唯天下至聖 … 凡有血氣者, 莫不尊親, 故曰配天." 이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김충열, 『中國哲學散稿』, 110~124쪽, 「易庸에 나타난 法自然의 人性論」을 참조.

40) 『論語』, 「里仁」,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 ; 「衛靈公」, "子曰,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

남이 모두 이치에 들어맞는 것이다.[41] 그 뜻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42]

4. 새로운 가족관의 모색

가족 형태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면서, 구성원 각자의 역할 구조도 물론 달라진다. 이미 전통적 가부장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가정에는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중심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각자 자기 영역을 고집하면서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만을 일삼는 가족 형태는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가장을 중심으로 모두 화합할 때 인간다움의 극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이 고독하면서도 권위를 떠날 수 없는 탓으로 홀로 무거운 걸음을 걷게 해서는 안된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삶이 더욱 복잡하고 몰개성적인 양태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가족이란 훈훈한 품이 홀로 던져지기 쉬운 인간을 따뜻하고 정감적인 인격체로 가꾸어 줄 것이다.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인간은 자기만의 삶을 고집하지 않고, 이웃과 전인류, 나아가 우주의 모든 것과 숨결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가치를 느끼는 대동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되지 않은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 스스로 크게 보려는 '自大狂'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다. 북송의 張載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

41) 程頤, 『程傳』, 「蠱・上九」, "士之自高尙, 亦非一道. 有懷抱道德, 不遇於時而高潔自守者. 有知止足之道, 退而自保者. 有量能度分, 安於不求知者. 有淸介自守, 不屑天下之事, 獨潔其身者. 所處雖有得失小大之殊, 皆自高尙其事者也. 象所謂志可則者, 進退合道者也."

42) 「蠱・上九・小象傳」, "不事王侯, 志可則也."

하늘을 일러 아버지라고 하고, 땅을 일러 어머니라고 한다. 나는 미소한 존재이면서 혼연히 그 가운데에 처한다. 그러므로 천지에 가득찬 기는 나의 몸이며 천지의 주재는 나의 본성이니 모든 사람은 나와 형제요 모든 사물은 벗이다.… 나이 많은 이를 높이는 것은 나의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는 까닭이고, 외롭고 약한 이를 보살핌은 나의 어린애를 어린애로 여기는 까닭이다. 성인은 천지와 덕을 합한 사람이고, 현인은 빼어난 자질을 지닌 사람이다. 무릇 천하의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과 아비 없는 자식, 봉양해 줄 자식없는 부모 그리고 홀아비와 과부는 모두 나의 형제가 심한 어려움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는 이들이다.43)

모두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회, 그것을 위해 우리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는 일조차 개인적 손해로 치부하려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자기실현에 큰 방해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덕목마저도 저버리면서까지 추구해야 될 대상이라면, 결코 그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기에 사람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이어야' 사람으로 취급된다. 사람다움은 기본적으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비롯된다. 부모가 자식기르기를 거부하는 시류만큼이나, 자식이 부모섬기기를 귀찮아하는 풍조도 심각하다. 심지어는 '의미없음'으로 다가온다. 때아닌 '효도' 운동이 벌어지면서 더욱 청소년들의 뒤틀린 감정을 부채질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다움'으로서의 효는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어느 집단이 교조적 수단으로 동원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넘쳐흐를 수 있는 것이 효다. 장재가 모든 인류를 형제로 보고 만물을 벗으로 여기도록 강조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효는 왜곡시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流露된다.

---

43) 『正蒙』, 「西銘」, "乾稱父, 坤稱母. 予茲藐焉, 乃混然中處. 故天地之塞, 吾其體, 天地之帥, 吾其性. 民, 吾同胞, 物, 吾與也.… 尊高年, 所以長其長, 慈孤弱, 所以幼吾幼. 聖其合德, 賢其秀也. 凡天下疲癃殘疾, 惸獨鰥寡, 皆吾兄弟之顚連而無告者也."

진실된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도덕 정서는 가정에서부터 길러진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아껴주고 자녀가 부모를 정성으로 따르고 섬길 때 하나하나 확인돼 나간다. 천지만물의 모든 존재가 부모 같고 형제 같으며 자식 같으면 거기서 누리는 삶은 또한 크나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은 한번 살아봄직한, 살맛이 나는 그런 곳이니 말이다.

《 參考文獻 》

『周易』『論語』『孟子』『老子』『中庸』『孝經』

顔之推, 『顔氏家訓』(北京:中華書局, 1993)
張 載, 王夫之 註, 『正蒙』(『船山全書』 第12冊, 湖南:嶽麓書社, 1992)
程 頤, 『易程傳』(『周易傳義大全』, 서울:보경문화사 영인본)
朱 熹, 『周易本義』(『周易傳義大全』, 서울:보경문화사 영인본)
　　, 『四書集註』(서울: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王夫之, 『周易外傳』(『船山全書』 第1冊, 湖南:嶽麓書社, 1988)
　　, 『周易內傳』(『船山全書』 第1冊, 湖南:嶽麓書社, 1988)

김충열, 『中國哲學散稿』(서울:범학도서, 1977)
　　, 『유가윤리강의』(서울:예문서원, 1995)
박이문, 『慈悲의 倫理學』(서울:철학과 현실사, 1994)
효사상 국제학술회의 편, 『효사상과 미래사회』(1995)

方東美, 『生生之德』(臺北:黎明出版公司, 1985)
邵漢明, 『儒道人生哲學』(長春:吉林教育出版, 1992)
李鏡池, 『周易探原』(北京:中華書局, 1991)
任繼愈, 『老子新譯』(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6)
朱伯崑, 『先秦倫理學概論』(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84)
賀麟 一, 『孟子之王道主義』(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93)